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수사 속도 낸다

아빠찬스·폼앗이·컴퓨터 무단 교체 등 관련자 잇따라 소환 “한점 의혹 없이 수사”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들을 최근 잇따라 소환, 지난 9월 노조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사무국장 아들·조카·아들 전 여자친구 등 채용비리 의혹과 또다른 간부 아들 채용에서 불거진 ‘폼앗이 채용’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용 비리 의혹 이후 사무국장 컴퓨터를 무단교체 한 정황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몇 명이 조사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누구를 소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한점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22명에 대한 조치를 처분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채용 업무에 관여했으나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감봉 1명, 경고 11명 등 경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 9월 6일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측의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광주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빠찬스’와 ‘폼앗이 채용’, ‘전직 간부 아들 채용’, ‘컴퓨터 무단 교체로 인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지난 10월 30

일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무국장 A씨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사무국장 등에 대해 보직사퇴 처리했고, 이삼용 병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인사, 구매·자산, 조직문화 등 세 분야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봉우 기자

코레일, 극단적 선택 직원 사건 특별감사...“갑질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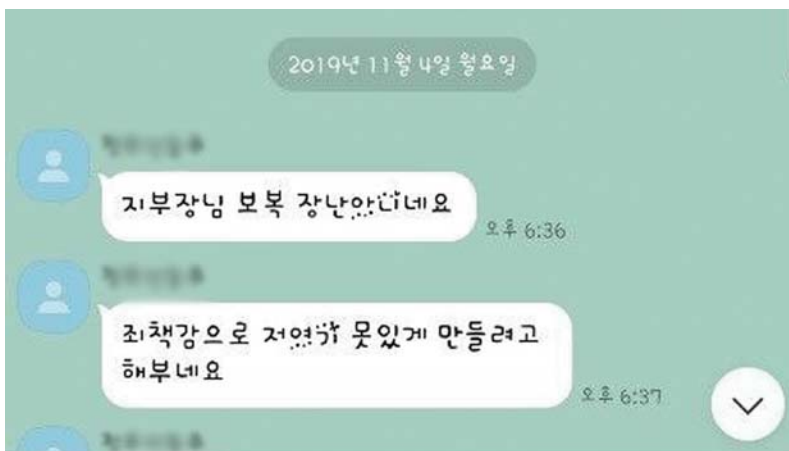
유가족 반발...국민청원 제기

코레일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관한 특별감사에서 “직장 내 갑질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부당한 전보조치와 보복성 지침 등으로 노조 대의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화순시설관리사업소 간부 A씨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자신의 집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대나무를 50여개를 잘라 개인 소유 1톤 트럭에 싣게 한 데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코레일 감사결과에 반발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란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동안 1번도 쉬지 말고 일하라는 복무지시를 하거나, 인사권도 없는 사람이 인사대상에도 해당하



철도노조 호남지부가 공개한 A씨와 지인의 SNS대화 내용

지 않는 매제(B씨)를 인사통보하고 강제로 송별회를 진행했는데도 코레일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8시10분쯤 전남 화순군 철도공사 내 직원주차장에서 화순시설사업소 시설관리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이 사측의 부당한 전보에 항의하다 보복성 지침에 고인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평소 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왔고 노조원들 간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지 사측의 지침 때문에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며 맞섰다.

코레일은 지난달 하순 A씨를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아버지, 스스로 목숨 끊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김모군의 아버지가 지난 27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김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동영상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SNS를 통해 “6반 00이 아버님이 27일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고인을 명복을 빌며,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다.

유경근 전 협의회 집행위원장도 SNS에 “계속 화 나다, 짜증 나다, 세상 욕 하다... 부등산 증개를 시작해서 의논하기로 했었는데”라며 “이제는 00이와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글을 올렸다.

단신

자전거 탄 80대, 군 장교 몰던 차에 연거푸 치어 숨겨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탄 80대 노인이 군인이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27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5시45분쯤 장성군 삼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씨(87)가 자전거를 타다가 B씨(27)의 차량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뒤따르던 C씨(26)의 차량에 또다시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의 차량에는 부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육군 소속 장교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정주행하던 차량과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나주 하천 빠진 차량서 유골 발견...수사 착수

하천에서 발견된 차량 내부에서 유골 7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2시51분쯤 나주시 한 하천 물속에 빠진 차량 뒷좌석에서 사람 허벅지로 추정되는 유골 등 총 7점의 유골을 수거했다.

차량은 89년식 프라이드 차로 물 속에 10년 이상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량은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사업 관계자가 드론을 띄워 하천 곳곳을 살펴보던 중 “물 속에 차체같은 것이 보인다”라며 신고를 하면서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소유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1998년 실종신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골 감식, 관계자 조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건만남 30대남 감금한 10대...1000만원 갈취 시도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감금 등 혐의로 A군(19) 등 남성 3명과 여성 청소년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목포시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면서 현금 2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에게 1000만원을 다섯 달에 걸쳐 입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중학교 인근서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중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서는 27일 중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47분쯤 나주시 한 중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흉기로 B씨(44)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개인적인 오해로 인해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넘어지면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